

2018년 2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8.2.22.(목) 오후 14:00~15:0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공정성, 정확성, 심층성 제고해야

- 1월11일 6시 모닝 와이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시 질문자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방식에 대한 가십성 평이나 새로움만 강조하고 지명 기회의 균등성이나 공정성 등에 대한 보도는 없어서 질문자 들 입장에서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사전에 준비된 질문자 선정과 질문에 비해 질문이나 대답의 품질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없어서 아쉬움(최신용 위원)
- 12일 가상화폐 규제 보도의 심층성이 떨어짐. 청와대 청원과 정부 방침과의 연관성에 대한 보도도 없고, 부처 간 이견과 법무장관의 일방적 발표에 따른 파장 등에 관한 보도도 없어 시청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각국의 규제 관련 입장 보도는 바람직함(최신용 위원)
- 17일 뉴스24 북한대표단의 판문점 육로방문의 의미를 평화메시지로 해석한 통일연구원의 일방적 견해만 전달하고 그런 북한의 속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시청자들이 북한의 의도를 오도할 수 있음(최신용 위원)
- 다스 수사와 관련하여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는 세간의 센세이셔널리즘에 의존하는 보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보도. 부당한 지원이 있었나, 대통령이 친인척의 회사에 특혜를 줬느냐가 본질(최신용 위원)
- 올림픽 보도 이외에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문제였음. 속보를 챙기는 성실성은 인정하겠지만, 왜(발생 이유)와 어떻게(대책)에 대한 보도가 부족했던 것 같음. 지엠의 철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있음. 노동자의 고임금 논란, 지엠본사의 고리대금 논란과 먹튀 논란, 한국산업은행의 직무유기 논란 등 다양한 쟁점이나 관심사가 있음.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시청자에게 제시하고, 앞으로 정부가 취해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여러 관점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권영후 부위원장)
- 20일 13시 뉴스에 "트럼프의 거침없는 통상압박, 대북카드와 연계하나?"라는 뉴스가 보도됐으나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었음. 이 보도대로라면 트럼프는 성군임.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지책이 되고 있음. 이런 분석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임. 연합뉴스의 관련 기사를 받아 보도한 것 같은데, 연합뉴스 기사는 정반대임. 트럼프가 대북문제를 지렛대 삼아 한국의 등골을 빼먹는 통상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음(권영후 부위원장)

- 보도전문채널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연합뉴스TV가 다루는 많은 뉴스들은 사실 전달 위주의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많음. 신속한 속보와 최초 보도가 중시되는 보도전문채널의 속성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심층성과 비판성을 어떻게 보완하고 강화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특히 취재원이 전하는 내용을 충분한 사실검증이나 비판적 판단 없이 그대로 내보내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계해야 함(배정근 위원)

▲ 보도의 역할 및 차별화 전략 제언

- 해빙기 안전 점검 캠페인이 필요함. 올 겨울 장기간 혹한에 따른 해빙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큼 정부 안전진단 추진 현황 점검, 취약 지역 집중 발굴 지속 보도할 필요가 있음(권영후 부위원장)
- 김여정 임신 사실 등 보도는 뉴스의 본질을 흐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미투 운동의 본질에 대하여 선제적 취재 보도가 필요함. 특히 그 동안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각 분야, 특히 문화, 예술계의 오래된 관행에 대하여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우리 사회의 여성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음(최신용 위원)
- 올림픽 주요 경기를 중계하거나 보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도, 올림픽 주변의 이야기나 문제들을 지적할 수는 있었음. 19일 보도한 "혐오 댓글 남발, 악플 올림픽 우려"는 좋은 기사였음. 하지만 다른 좋은 소재들도 있었지만, 이 보도 이외에는 눈에 띄지 않았음.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메달 특히 금메달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보도가 없었던 것은 아쉬웠음(곽병찬 위원)
- 현재 방송중인 사진기자들의 보도사진을 활용한 '클릭 베스트컷'과 같은 제작 보도 프로그램은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며, 이와 유사한 기획 보도 또는 다큐멘터리를 연합뉴스TV의 고유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오준 위원장)
- 지역뉴스를 특화해야함. 중앙과 지방의 격차 해소 시급, 정책 기획과 함께 국민의 인식 개선 급선무이고 차별화된 지역뉴스 포맷을 개발해야 함. SNS의 부족화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뉴스를 발굴해야 함. 4차 산업, 스타트업 관련 지역의 우수 사례 집중 조명(광고성 기사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시니어 세대의 구술사 활용, 지역의 역사 스토리를 재창조해야함(권영후 부위원장)
- 6시 이 시각 핫뉴스에 이어지는 이 시각 주요뉴스와의 차별성이 별로 없어 보였음(최신용 위원)
- 9시 뉴스, 8시 뉴스와 겹치면서도 약간씩 액센트가 추가됨. 펜스 멘트. 대북압박 미국 현지 반응. 등 좀 더 추가해 8시 뉴스를 본 시청자들도 뉴스를 계속 볼 유인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이경상 위원)

▲ 화면구성, 자막, 표현 등 개선 필요

- 6시 이 시각 핫뉴스의 내용설명은 우수해 보였으나 화면 구성은 시각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음(권영후 부위원장)
- 뉴스를 만들 때 시청자의 관심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성의 있는 기사가 많아졌으면 함. 방송뉴스에서 점점 그래픽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가끔 보면 정보가치가 떨어지고 완성도가 부족한 사례가 보임. 1월 보도 가운데 지구촌 온난화 속 강추위 설명하면서 북극 제트기류 변화가 어떻게 한반도에 한파를 가져오는지 그래픽이 있었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만들어졌음. 북극을 싸고 있는 제트기류대가 온난화 영향으로 느슨해져 한반도까지 늘어지는 상황을 그래픽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제트기류만 표시하고 말았음(배정근 위원)
- 김연아 점화후 퍼퍼백 소리와 함께 화면이 앵커에게로 급전환되어 부자연스러움(이경상 위원)
- 12일 일요일 자정 뉴스 포함 지진 보도시 보경사 대응전을 자막으로 보광사로 내보냄. 이런 착오가 가끔 있는 듯함(최신용 위원)
- 1월25일 오후 9시57분, "우원식 대표의 정쟁 중단 제의에 야가 발끈". 이런 표현은 사건 자체의 성격을 규정하므로 기자들의 단어 선택에 신중할 필요. 전혀 발끈하지 않았음. 정현 열풍을 정현앓이로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로(최신용 위원)
- 지난 설 연휴기간의 교통상황 뉴스에서 "북천안 ~ 오산 구간 정체"를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에는 크게 밀리지 않고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장면이 계속 보임. 보다 세심한 자료화면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김석민 위원)
- 화면에서 자막과 스크롤 등 많은 글자가 나옴. 눈으로 보면서 뉴스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다만, 색이 너무 강렬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는데 오렌지색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음. 특히 큰 글자 자막에서 자주 사용하면 강조의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음(김석민 위원)
- 자막의 오.탈자는 항상 신경 써서 관리해야함. 지난 1.24 저녁 8시 뉴스의 경우 여러 글자에서 실수가 나왔는데 8시 뉴스는 많은 사람이 보는 만큼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임. ※ 예 : 황령(횡령), 본인인(본인 확인), 7년만 최저(7년만에 최저) 등(김석민 위원)
- 자막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가 있음. 뉴스의 신뢰도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하규섭 위원)
- 실수인지 계획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동안 광고 송출 중에 큰 글자의 자막이 화면 중앙에 나온 적이 있음. 응급상황을 알리는 자막도 아닌 내용이었음. 광고도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광고 중에 다른 내용의 자막이 나오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음(하규섭 위원)
- 미국 퇴학생 총기사건 때 자막 표현에 문제가 있었음(교사 내에... 건물 밖에). 그 다음날 아침 방송에서도 동일했음. 사소해서 그대로 두는 건지? 모니터링을

않는 건지? 궁금함(이경상 위원)

▲ 프로그램 편성, 기획 의견

- 뉴스를 정시보다 10-20분 일찍 시작하는 방안의 장. 단점. - 이미 연합뉴스TV를 시청해 온 시청자는 뉴스 시간대가 다른 방송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고 조금 먼저 연합뉴스TV를 시청하게 되어, 시청자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새로운 시청자들은 정시에 맞춰서 연합뉴스TV를 틀었을 때 이미 주요 뉴스가 지난 상황일 수 있으므로, 다음에는 다른 뉴스 채널을 시청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장. 단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오준 위원장)
- 뉴스 보도 이외에 기획, 제작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게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현재는 주로 주말에만 방송되고 있는데, 연합뉴스의 전 세계 특파원들과 통신원을 활용하여 평일에는 국제뉴스 코너를 본 뉴스와 분리시켜 정해진 시간대에 방송함으로써 국제뉴스의 수요자들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봄(오준 위원장)
- 오늘의 빅데이터 코너를 확대해야 함. 대중 친화적인 통계 스토리 구성, 통계 지식을 확산하고 올림픽, 미투 운동, 가상화폐, 안전진단 등의 내용을 구성하면 좋을 것(권영후 부위원장)
- 김여정 뉴스와 개막식 뉴스간 조합 부족했음. 스타트후 김여정 동정+청와대 방문+815 방북초청 등 3개 세션이 이어졌음. 시청자들 올림픽 개막식 감동 재확인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개막식 내용은 너무 늦게 나와서 기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이경상 위원)

▲ 뉴스 진행 앵커 및 출연자 관련

- 1월28일 9시 정정당당 여야 집중토론- 각자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이런 토론방식이 필요한가? 앵커의 역할이 이슈를 던져 놓고 자신은 전혀 역할을 하지 않음(최신용 위원)
- 1월29일 11시20분. 뉴스 투나잇에서 뉴스속보 금강산 합동문화공연취소 통보 자막 처리는 게시 시간은 충분했으나 이런 속보는 앵커의 멘트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최신용 위원)
- 뉴스 진행자들이 타 방송사에 비해 젊은 사람이 많은 것 같음. 생동감 있고 젊은 느낌이 있어 좋은 반면, 시청 시간대의 연령층 분포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됨(김석민 위원)
- 진행자와 출연자가 대담을 하는데, 정치적 사향에 관하여 진행자가 이미 어느 한쪽에 편향된 인식을 지니고 진행을 하는 것을 보았음. 진행자는 중립적 위치를 유지해야 함(하규섭 위원)

- 올림픽 개막식 다음날 8시 뉴스, 앵커 첫 멘트 길다는 느낌. 앵커 얼굴만 비추며 진행되는데 멘트가 고저강약 없이 길어지니까 좀 지루했음(이경상 위원)
-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음 시청자들은 분석과 해석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섭외시 좀 더 공을 들여줬으면 함(이우영 위원)
- 이슈 선정과 토론자의 전문성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는지도 문제-세종병원 참사, 평창올림픽, 강남 집값, 최저임금제 등 분야 별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출연자들이 상식적 수준에서 평론하는 정도였음(최신용 위원)
- 지난 대선 이후 패널로 정치인 또는 정치 관련 인사들의 출연이 많은 편임. 균형 위해 여.야측 인사들이 나오면 자칫 자기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면이 많은데 정치적 사안은 그렇다 하더라도 각종 사회 현상에 대한 경우는 적절치 않은 내용도 종종 보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실 필요가 있고, 전문기자의 출연 또는 전문가 전화 인터뷰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임(김석민 위원)

▲ 기타 의견 및 긍정적 평가

- 올림픽 경기 후 뉴스는 뉴스 톤이 좀 밋밋함. 아나운서 목소리에 활기가 있고, 응원하는 느낌 있으면 공감, 몰입 높아질 수 있음. 5G 등 올림픽의 볼거리. 자랑거리 등도 누락된 느낌(이경상 위원)
- 연합뉴스TV는 타 방송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점은 좋으나 방송사고가 잦은 문제가 있음. 스튜디오의 오디오 소리가 섞여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음. 조금 더 신경을 서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함(노영희 위원)
- 지상파 방송의 과도한 메달 중심 편향 중복 편성문제가 있음. 보도 채널도 이를 따라가는 경향, 메달 위주 보도는 올림픽의 감흥을 단기간에 사라지게 할 가능성이 큼. 동계 스포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 올림픽의 결과가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보도의 역할 재정립해야 함(권영후 부위원장)
- 2월2일 뉴스24에서 설 준비 구입 안내는 품목별 구입 적기, 가격 등을 시기별로 안내한 것은 생활 뉴스로서의 소비자 친화적인 방송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권영후 부위원장)
- 3일 세브란스 화재보도의 신속성과 화면 송출은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궁금증 해소에 기여했음(권영후 부위원장)
- 동계올림픽 기간 중 뉴스를 지켜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함. 경기 중계에 집중된 공중파 채널은 물론 다른 종편채널보다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물론 자원 등의 문제가 있어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보도 채널의 존재감을 잘 보여줬음. 우리 시청자들이 국내외의 여러 사태에 대한 부족한 정보를 연합티브이를 통해 채웠을 것으로 보임(권영후 부위원장) - (끝).